

담양군, 곳곳서 김장 나눔 행사 ‘훈훈’

각 읍면 사회단체·주민 모여 김장 담그기 진행
“따뜻한 겨울 보낼 수 있게 돕기 위한 뜻깊은 행사”



담양군 곳곳에서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 담근 김장김치를 전달하는 사랑의 나눔 행사가 이어져 훈훈함을 주고 있다. 담양군에 따르면 본격적인 김장철인 지난달 중순부터 봉산면을 시작으로 각 읍면 사회단체에서 김장 담그기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 11월29일 고서면에서는 면 새마을부녀회와 LG이노텍(주) 광주공장 임직원 20명 등 총 50여명이 동참한 ‘사랑의 김장나눔기 행사’를 진행,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경로당 등 200개소에 직접 담근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장평면 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달 28일 회원 20여 명이 참여해 김치를 담가 관내 지역 아동센터와 경로당, 소외가구 등 150여 세대에 전달했으며, 27일에는 수북면 새마을부녀회가 독거가구 및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는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 활동을

펼쳤다. 11월26일에는 무정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회원과 무정농협, 주민이 함께 김치를 담가 어려운 이웃 120세대에 전달하며 이웃과 정을 나눴으며, 앞선 22일에는 대전면 새마을부녀회에서 각 마을 부녀회장과 지역 주민 40여 명이 참여해 1000포기의 김장김치를 만들어 취약계층 150여 세대에 전달했다. 앞선 지난달 20일에는 월산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지역 내 모든 여성단체가 참여해 독거노인 등 200가구에 월동용 김장 김치를 전달했으며, 같은 날 담양읍 이장단과 새마을부녀회에서는 회원 100여 명이 참여해 담근 김치를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되고 어려운 독거노인과 장애인 50세대에 전했다. 군 관계자는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누기 행사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매년 진행하고 있는 뜻깊은 행사”라며 “어느새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정성껏 김치를 담그며 함께 고생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담양=백종영 기자

광주 남구, 장애인체육회 채용 부정행위 확인...징계 요청

6시간 만에 합격자 바뀐 채용 관련 감사 결과 발표

광주 남구가 장애인체육회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남구장애인체육회 채용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을 올린 사람은 지난 2월26일 오전 11시쯤 채용 합격 통지를 문자로 받은 후 오후 5시에 불합격했다는 취소 통지를 또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채용공고가 1명이 난 것처럼 돼 있었는데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니 2명이 합격한 것처럼 보였다면서 이에 채용과 관련된 의혹을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광주 남구는 특검감사팀을 꾸려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남구장애인체육회는 10개월 계약직인 생활지도사를 뽑는다는 공고를 냈고, 2월26일 합격자 2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면접위원 5명 중 2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면접을 진행한 것을 남구청 간부공무원이 확인, 면접위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고를 다시 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다.

결국 남구장애인체육회는 합격이라는 문자를 보낸 사람 중 1명에게 불합격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3월에 재공고를 통해 1명을 다시 선발했다.

당시 불합격 통보를 받은 사람은 청원인이었고 불합격 통보를 받지 않은 사람은 광주시 장애인체육회에서 파견을 나와 근무했던 사람으로 알려졌다.

이후 남구장애인체육회는



4월2일에 추가 합격자 1명을 발표했는데 과건 근무 나왔던 1명이 합격했다는 내용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남구장애인체육회는 면접위원 소 통지를 또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채용공고가 1명이 난 것처럼 돼 있었는데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니 2명이 합격한 것처럼 보였다면서 이에 채용과 관련된 의혹을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남구는 당시 지시를 내린 A과장이 재공고를 추진하도록 하는 등 부적절한 업무지시로 선량한 피해자를 만들었고, 1명의 채용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묵인했다면서 광주시에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 임의적으로 면접 점수표를 작성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남구장애인체육회 관계자와 면접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특정인을 언급한 남구체육회 관계자에 대해서도 각각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장애인체육회에서 사람을 채용한다고 해서 내용을 파악해 보라는 지시를 내렸을 뿐”이라며 “국민청원에 올라왔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감사를 철저히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 등에 대해 채용상 문제점이나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파악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곡성군,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곡성군이 지난달 27일 곡성 레저문화센터에서 ‘2019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교육이다.

전남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전문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해 강사를 파견하고 있다.

교육을 통해 참석자들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와 함께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법과 대처요령을 배울 수 있었다.

특히 관련 법령과 피해자 구제절차 등을 실사례를 들어 자세하게 안내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곡성군은 매년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성 윤리관 정립과 양성평등의식 향상을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곡성=김광휘 기자

아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아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아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

Drawing 이호동